

이종모 박사 상법 기본강의

■ 강의일정 2017년 1/9(월) ~ 2/3(금), 오후, 총 20 회, 월~토강의, 일정변경 유의
오후 1:40 ~ 5:10
※ 설연휴(1/27~30 강의없음)

■ 교 재 상법정리(저자)
+ 상법정리 조문집(저자, 제공) - 조문집은 실강수강생에 한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 이해점검용 확인문제(제공)
※ 확인문제는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OX문제입니다.
수업시작 전 20분에 걸쳐 풀어보고 중요한 지문을 선별하여 설명합니다.

■ 강의진행 1. 달라진 출제경향을 반영한 강의

최근 상법의 출제경향을 보면, 선택형의 경우 출제예상을 범위가 출제되거나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출문제와 중복된 범위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 37. [자기주식의 취득]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ㄱ. 회사는 자기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진면적 휴지설”

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나,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질취의 경우에도 제341조의2 1~2를 준용”

ㄷ.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계속 보유하는 것도 가능! 처분위무가 없음!”

ㄹ. 단주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를 ~~요한~~ ^는 하지 않아도 ~~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39.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甲은 청과물시장의 위탁매매상인 乙에게 자신이 과수원에서 재배한 대추의 판매를 위탁하고, 乙은 이를 대추가공품 제조업자인 상인 丙에게 판매하였다.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관례에 의함) 2

ㄱ. 乙이 丙으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채권을 甲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丁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ㄴ. 乙이 甲으로부터 대추를 인도받은 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임을 안 때에는 즉시 甲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甲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처분할 수는 없다.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108②)

ㄷ. 丙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없어도}, 乙은 甲에게 그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있다.}

ㄹ. 甲이 乙에게 1kg당 1만 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으나 乙이 이를 1kg당 1만 5천 원에 매도했다면, 1kg당 차익 5천 원은 甲의 이익으로 한다. 위탁자의 이익으로!!

ㅁ. 乙이 丙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보유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그러니 타인의 재물이고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위 문제는 기출문제 중 자기주식 및 위탁매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문 중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없으며, 출제가능성 또한 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 및 어음관련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문 49 고지의무는 보험계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 → 아직까지 역시 중요한 것들이 출제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 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고지의무의 개념입니다.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중과실 / 객관적 요건 : 중요한 사항의 부실 또는 불고지
- ② 냉동창고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의 목적인 냉동창고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완성된 냉동창고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에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 ③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위반사실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계약의 해지입니다.
- ④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그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 체결시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라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라도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지급책임도 면한다. 개정된 보험계약법의 내용입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 52. 또 나왔습니다. → 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어음수표 역시 중요 논점에서만 출제됩니다.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 ①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상취득한 경우의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해당 어음액면 상당액이다.
- ②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위조와 변조는 물적항변 사유 → 누구에게나 그 사실로 대항할 수 있음
- ③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음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지인에게! →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④ 어음이 위조된 후 그 어음을 취득하여 배서양도한 자는 위조된 문언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위조되었지만 그 어음에 유효한 어음행위(배서)를 한 자는 그 문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⑤ 변조 후에 그 어음에 기명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례형은 위법배당의 효과와 같이 다소 의외인 부분에서 출제된 경우도 있고 기록형 문제에서는 어음법의 논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점도 고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므로, 출제범위만 다소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중요 조문과 그 해석(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비교적 공부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 기출문제를 보면 조문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판례의 태도)이 상법공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판례는 조문에 대한 해석(해석법학)을 하는 것이므로 조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상법정리”)를 통한 상법의 정리

민법 등과 다르게 상법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험에 적합한 교재로 상법총칙에 해당하는 첫 부분부터 꼼꼼하게 공부합니다. 기초개념의 이해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후 법리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이해가 쉽도록 구성에 노력했습니다. 교재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의 시작에 특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Point”를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재의 흐름에 따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본문에는 조문과 판례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서도, 읽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크기를 줄이고, 문단이 길어져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제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이면 문단을 달리하고 “[]”안에 중요단어를 표시했습니다. 복습시에 관련 내용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학설 및 판례의 견해가 등장하는 부분은 개별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사례형 답안 작성에 위한 것입니다. 구별하여 기억하시고, 견해 대립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4) 열거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 항목별로 나열했습니다.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5) 해당 부분에 관련 핵심 지문이 있는 경우 좌우날개에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해설은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재의 내용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되도록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자 했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요지 정도가 아니라 본문 중 일부를 길게 인용한 경우도 많은데, 정확한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정리된 후에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7)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논술쟁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목차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답안작성의 첫걸음은 목차의 구성입니다. 사례형 기출문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공부한 내용을 염두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한 뒤 간략하게 제시된 목차를 통해 답안을 작성해 볼 것을 권합니다.

8) 기출문제를 표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되었고, 그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조문집을 통해 법조문의 원문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각주에 인용된 판례의 내용도 함께 숙지하겠습니다. 시험의 표현방식은 조문 및 판례와 유사합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3. 밀착형 관리 및 지속적인 답변을 통한 강의효과의 최대화

일정부분의 진도가 끝날 때 마다 OX문제를 통해 공부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OX 시험을 통해 공부가 다소 부족한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 강의는 예습 보다 철저한 복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복습시 궁금한 사항은 SNS를 활용해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4.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

공부량이 많은 수험생들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범위가 넓은 상법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주신다면 정리된 내용을 모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범위이지만 천천히 면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합니다.

진도별 강의내용

횟수	날짜	분류	내용	비고
■ 제 1 회	1/9(월)	상법총칙 상행위	상법의 개념, 상법의 특성, 상법의 법원, 상인의 개념	
■ 제 2 회	10(화)	상법총칙 상행위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 제 3 회	11(수)	상법총칙 상행위	상행위 통칙, 상사매매, 상호계산, 합자조합,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 제 4 회	12(목)	상법총칙 상행위	운송주선업, 운송업, 창고업, 공중접객업,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 제 5 회	13(금)	회사법	회사법의 의의 및 개념, 회사의 의의 및 종류, 회사의 능력, 주식회사의 의의	확인문제 풀이
■ 제 6 회	14(토)	회사법	주식회사의 설립 ① - 회사설립 일반 - 발기인 · 발기인조합 · 설립중회사 - 정관의 작성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제 7 회	16(월)	회사법	주식회사의 설립 ② - 설립절차 - 설립등기 - 설립에 관한 책임 - 회사설립의 무효 - 사후설립	
■ 제 8 회	17(화)	회사법	· 주식 - 주식의 개념, 주식의 종류(종류주식) · 주주 - 의의, 주식평등의 원칙, 권리, 의무	
■ 제 9 회	18(수)	회사법	· 주권, 주주명부, 주식의 양도, 담보 ·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 주식매수선택권	
■ 제 10 회	19(목)	회사법	· 주주총회 - 의의, 소집 - 권한, 의결권 - 종류주주총회 - 결의의 하자	확인문제 풀이
■ 제 11 회	20(금)	회사법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 집행임원	
■ 제 12 회	21(토)	회사법	· 이사의 의무, 책임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제 13 회	23(월)	회사법	·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의 특례 • 신주의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및 종류 - 신주인수권 - 신주발행의 절차 - 신주발행의 유지 - 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의 불공정가액 발행 	
■ 제 14 회	24(화)	회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의 변경 • 자본금의 감소 • 회사의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 준비금 - 이익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 주주의 경리감독권 - 이익공여의 금지 • 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채의 발행 - 유통과 상환 - 특수한 사채 - 사채관리 회사 - 사채권자 집회 	
■ 제 15 회	25(수)	회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특수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변경 - 합병, 분할 -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 해산과 청산 •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확인문제 풀이
■ 제 16 회	26(목)	어음수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 어음수표의 개념(어음수표법 개관) • 어음, 수표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립요건 - 대리, 대행 - 위조, 변조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제 17 회	31(화)	어음수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상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의 취득 - 권리의 행사, 항변 - 권리의 소멸 - 말소와 훼손 - 상실, 이득상환청구권 	
■ 제 18 회	2/1(수)	어음수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 수표의 실질관계 • 환어음의 법률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 배서 - 인수, 보증 - 지급, 상환청구 	
■ 제 19 회	2(목)	어음수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표의 법률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수표행위 - 제시와 지급 - 횡선수표 - 상환청구 등 	
■ 제 20 회	3(금)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법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법 통치 - 생명보험, 손해보험 	